

사서행태의 연구 동향

Research Trends on Librarians' Behaviors in Korea

김 갑 선(Kapseon Kim)*

〈목 차〉

I. 서론	5. 연구방법 분석
II. 연구방법	6. 연구대상지역 분석
1. 연구설계	7. 연구자유형 분석
2.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기준 및 방법	IV. 논의
3. 분석도구	1. 사서행태 연구의 연구주체
4. 분석준거	2. 사서행태연구의 연구목적과 연구결과 의 적용
III. 분석결과	3. 사서행태 연구방법
1. 연도별 논문생산 동향	4. 사서행태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학술지별 특화전략
2. 학술지별 연구동향	V. 결론
3. 주제별 연구동향	
4. 연구목적 분석	

초 록

본 연구는 사서행태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지향점과 시사점을 모색하는 첫 번째 시도이다. 문헌정보학을 대표하는 4개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총 163편(3.3%)의 논문을 선별하였다. 분석준거는 연도 및 시기, 학술지, 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대상지역, 연구자유형이다. 분석결과, 1) 대학도서관 사서행태가 28.8%이며, 공공도서관 사서행태가 26.9% 이었다. 2) 조직행태에 관한 논문이 53.9%이며, 업무행태에 관한 논문은 31.9% 이었다. 3) 사서행태 논문의 연구목적은 관련 현상의 인식 규명이 52.7%이며, 관련 현상의 현황 및 개선은 41.1% 이었다. 4) 양적 연구방법이 매우 우세하였다(82.2%). 5) 대학도서관 사서행태 논의는 사서들의 관련 현상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행태는 관련 현상의 실제적 현황과 개선을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 연구자유형은 교수가 참여한 연구가 84.0%이며, 사서가 참여한 연구는 26.3%였다. 사서행태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연구의 수행주체, 연구목적, 연구방법, 학술지 특화전략을 논하였다.

키워드: 사서, 사서행태, 사서직, 연구동향, 내용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on librarians' behaviors(LB) in Korea. 163 papers were selected in four representative journals published in Korean LIS, 1970–2015. The papers were analyzed in terms of period, journal, theme, purpose of research, research method, areas, type of author.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LB of University library were 28.8% and then that of public library were 26.9%. 2) Organizational behaviors of librarians were 52.7%, and then work behaviors were 31.9%. 3) Purposes of research were to examine librarians' perception (52.7%) and then to improve of current state of libraries(41.1%). 4)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as heavily found(82.2%). 5) Research purpose on LB of University library was related to identify perception of librarians, and that of Public library was related to improve current state of libraries. It discussed four strategies for sustaining growth of LB study aspect of research subject, research purpose, research method, and editorial strategies of four journals.

Keywords: Librarian, Librarians' behaviors, Librarianship, Research trends, Content analysis

* 중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양학부 조교수(kapskim@jwu.ac.kr)

•논문접수: 2016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8일 •제재확정: 2016년 12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309–337,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12.309]

I. 서론

정보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는 최근의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정보서비스 운영 주체인 사서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심도 있는 사서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 논문에서 사서들에 관한 연구,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주제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는 해당 분야의 축적된 연구 성과물을 근거로 한다. 연구 동향 분석은 해당 주제연구의 발전 동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여러 특색과 한계를 파악하며 미래의 발전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서 사서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논문들을 선별하고 분석하여 사서행태라는 새로운 접근 측면에서 국내 연구의 특색과 동향들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의 정의에 따른 국외의 사서행태연구는 아직 없다. 사서에 관한 연구인 ‘사서연구’라는 포괄적 주제 측면에서 메타연구인 체계적인 문헌리뷰를 적용하여 리에종사서의 역할을 탐구한 연구가 있다(Abrizah, Inuwa and Afiqah-Izzati 2016).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사서행태 (Librarians' Behaviors) 연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서행태연구는 도서관과 정보 조직의 구성원인 사서들의 인식과 행동양식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는 연구이다. 둘째, 사서행태연구는 연구주체가 누구이든 사서에 관한 연구로 사서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증적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이여야 한다. 셋째, 사서행태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사서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사서의 의견, 인식, 활동, 경험 등을 분석한 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좁은 의미에서 사서행태연구는 실무 관련 현상에 관한 사서들의 의견, 인식, 활동, 경험 등에 관한 양적 데이터, 질적 데이터 등 직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로 정의하기로 한다.

탐구현상에 관한 다양한 접근의 사서행태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도서관 현장에 기반하여 도서관실무와 이론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혁력을 갖는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서행태연구는 정보서비스 주체인 사서와 도서관 현장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사서행태연구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현장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사서, 도서관, 정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정책의 개발 등을 모색하는데 근간이 된다. 넷째, 사서행태연구는 실무 중심의 근거에 기반한 이론과 지식 생산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행태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접근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 및 시기, 학술지, 주제 면에서 연구의

성장과 발전의 추이와 그 특징은 어떠한가를 구명한다. 둘째, 사서행태연구의 주제는 무엇이며, 사서행태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힌다. 또한, 주제의 시기별, 학술지별 특색은 어떠한가도 밝힌다. 셋째, 국내 사서행태연구의 한계는 무엇이며, 연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모색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의 창간호부터 최근 2015년까지 발표된 4,820편의 논문 중 사서행태 연구로 선별된 163편(3.38%)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접근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술(記述)적 조사연구이다.

2.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기준 및 방법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을 대표하는 학술지인 관련 학회의 등재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4개 학술지의 창간호(1권)부터 2015년 4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70–2015;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974–2015;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84–2015; 정보관리학회지 1985–2015)까지이며, 창간연도에 따라 최장 46년에서 최소 32년 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서행태연구의 정의에 따라 분석자료는 사서를 대상으로 실증적 경험적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즉, 현직 사서의 의견, 인식, 경험을 분석의 자료로 담고 있는 실증적 경험적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서 ‘사서’, ‘사서직’, ‘사서교사’ 용어가 논문제목과 초록, 주요어로 출현하는 논문은 연구방법까지 검토하였다. 또한 관련 용어가 논문제목으로 나타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논문을 찾아내기 위하여 학술지에 수록된 전체 논문의 본문 내용까지 검토하였다. 배제된 논문은 첫째, 사서라는 용어가 논문제목이나 주요어로 나타나지만 이론적 연구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사서 및 사서직, 사서자격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문, 이론적 모형만을 논의한 논문들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목적에 따라 이론적 연구보다 실증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논문이 현직 사서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현직사서가 아닌 예비사서 (문헌정보학과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사서(교사)와 특정 집단을 비교하는 논문은 포함하였다.

3. 분석도구

사서행태연구의 동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논문을 7개의 주제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분석준거의 주요 큰 범주는 연도 및 시기별, 학술지별, 주제별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기, 학술지,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 대상지역, 연구자유형 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중요한 분석준거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자는 특정한 현상을 주제로 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분석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연구목적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게 된 의도를 나타내며, 연구문제를 해결하도록 적합한 연구방법을 선정하게 하고, 연구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등 연구 전체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분석한 모든 자료는 단순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4. 분석준거

첫째, 연도 및 시기 분석을 하였다. 모든 연구논문은 당대의 사회적 흐름이나 시대적 인식의 한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서 연도별, 시기별로 연구의 주제나 연구방법 등의 변화 경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학술지를 창간호부터 5년이나 10년 주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시대별 흐름을 주요 경향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학술지 분석은 4개 학술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대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측면에서 시기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주제분석은 내용분석을 적용하여 연구주제를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로 구분하였다. 총 6개의 대주제, 4개의 중주제 및 다수의 소주제로 구분하였다.

주제분석은 논문의 제목, 초록, 주요어, 본문 내용에서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 복합주제일 경우에는 초록과 본문내용의 재검토를 통하여 연구자의 본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원연구자가 보다 중점을 두는 한 가지 주제에 분류하고자 노력하였다. 대주제는 관종별 사서행태로 구분하였다. 공공도서관 사서행태, 대학도서관 사서행태, 학교 도서관 사서행태, 전문도서관 사서행태, 국립도서관 사서행태, 다관종 사서(2개 관종 이상의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행태로 대별하였다. 대주제의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중주제는 업무행태, 조직행태, 교육행태, 개인특성행태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중주제영역을 정의하자면 ‘업무행태’는 도서관,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현

상에 대한 사서의 의견, 신념, 인식, 경험 등에 관한 주제이다. ‘조직행태’는 사서가 조직구성원으로서 조직현상에 관한 사서의 인식과 경험 등에 관한 주제이다. ‘교육행태’는 사서의 공식적 계속교육뿐 아니라 학부 교육과정에 관한 사서의 의견, 신념, 인식, 경험에 관한 주제이다. ‘개인특성행태’는 사서들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에 관한 주제이다. 소주제는 각 논문의 주제용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넷째, 대상 논문의 연구목적을 분석하여 ‘인식’, ‘현황과 개선’, ‘개발’로 도출하였다. ‘인식’은 탐구 현상에 관한 사서들의 주관적 지각 정도, 선호성을 식별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는 논문을 포함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리커트척도를 적용한 논문을 들 수 있다. ‘현황 및 개선’은 특정 현상에 관한 사실(fact)에 근거한 현황 조사, 실태 분석과 개선을 목적으로 사서들의 의견, 경험을 연구한 논문을 포함하였다. ‘개발’은 사서의 의견, 인식, 경험의 직접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일반적 모형 개발, 이론적 모형 도출을 시도하는 논문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대별하였다. 양적 연구는 통계기법을 적용한 ‘통계기법’ 논문과 단순빈도(%)를 도출한 ‘서술기법’ 연구로 구분하였다. 통계기법을 적용한 양적 연구는 단순빈도를 제외한 기술통계,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을 적용한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심층면접이나 관찰자료를 수집하여 경험의 맥락이나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구체적 질적 연구 방법을 언급하고 적용한 ‘질적 연구’와 적용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일반 질적 연구’로 구분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의 참여자가 거주한 지역을 사서행태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간주하고 지역을 분석하였다. 대상지역은 전국, 서울, 서울과 경기, 경기, 부산,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대전,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강원지역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본 연구자가 지역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급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일곱째, 연구자유형은 단독연구와 공동연구로 대별하였다. 단독연구자일 경우 연구자신분은 교수,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사서, 사서교사, 관련 실무자로 세분하였다. 공동연구일 경우는 교수와 교수, 교수와 강사, 교수와 연구원, 교수와 대학원생, 교수와 사서, 교수와 사서교사, 교수와 관련 실무자, 사서와 사서로 세분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연도별 논문생산 동향

국내 문헌정보학을 대표하는 4개 학회 학술지의 논문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학술지의 분석기간은 창간호에서 2015년까지이다(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70년 12월, 1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집-2015년 12월, 49(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974년 10월, 1-2015년 12월, 46(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72년 12월, 1집-2015년 12월, 26(4); 정보관리학회지, 1984년 12월, 1(1)-2015년 12월, 32(4)). 최대 분석기간은 한국문현정보학회지이며, 1970년에서 2015년까지 46년간이다. 최소 분석기간은 정보관리학회지이며, 1984년에서 2015년까지 32년간이다.

4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4,820편이 발표되었다. 그 중 사서행태연구는 163편이다. 이는 계재된 총논문의 3.38%에 해당된다. 사서행태연구가 다른 주제에 비해 매우 소수로 논의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논문의 총생산 추이와 연계해서 사서행태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에 2.3%(2편)로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는 1.2%(3편)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는 3.4%(26편)로 증가하였고, 2000년대는 2.6%(57편)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대(2010-2015)는 4.8%(75편)로 최고치를 이루고 있다.

분석대상이 되는 사서행태논문(163편)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사서행태연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 1.2%(2편)로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는 1.8%(3편)로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는 15.9%(26편)로 80년대에 비해 약 8배로 폭증하였다. 2000년대는 34.96%(57편)로 90년대 보다 2배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대(2010-2015)는 46.0%(75편)로 최고치를 이루고 있다.

학술지별 논문의 총생산량과 대비하여 사서행태 논문의 점유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이하 ‘비블리아’)가 714편 중 38편(5.3%)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문현정보학회지(이하 ‘한문정’)가 1,414편 중 53편(3.7%), 한국도서관·정보학지(이하 ‘한도정’)가 1,512편 중 55편(3.6%), 정보관리학회지(이하 ‘정보관리’)는 1,180편 중 17편(1.4%) 순이다. 사서행태 총논문(163편) 중 학술지별 논문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33.7%(55편), 한국문현정보학회지가 32.6%(53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23.3%(38편), 정보관리학회지가 10.4%(17편) 순이다. 10년 단위의 시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는 문현정보학 분야의 학술지 3종이 창간되는 시기(한문정 1970; 한도정 1974; 비블리아 1972)였다. 3종의 학술지는 전체적으로 총 85편의 논문을 생산하였다. 사서행태연구로 2편(2.3%)의 논의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실증적 사서행태 연구로 국내 학술지에 처음으로 발표된 논문은 비블리아(3집)에 게재된 전재봉의 대학도서관 사서의 직무태도에 대한 분석적 연구(1978 4월)이다. 이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1978)을 축약한 것이다. 두 번째로 발표된 논문은 같은 해에 한문정(5집)에 게재된 박인웅의 國·公立 공공圖書館 司書職의 士氣에 관한 研究(1978 12월)이다. 이 논문도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이다.

〈표 1〉 연도별 논문 생산 추이 및 학술지별 사서행태 논문 추이

학술지 연도	한문정			한도정			비블리아			정보관리			계		
	사서 행태	총 논문수	%	사서 행태	총 논문수	%									
2015	5	77		3	74		4	55		2	55		14	261	
2014	6	75		1	71		10	58		3	50		20	254	
2013	3	70		2	75		3	58		2	55		10	258	
2012	1	56		5	75		2	67		2	59		10	257	
2011	3	71		6	71		4	68		0	76		13	286	
2010	5	68		1	65		2	53		1	59		8	245	
소계	23	417	5.5	18	431	4.1	25	359	6.9	10	354	2.8	75 (46.0)	1,561	4.8
2009	5	67		4	86		2	59		1	67		12	279	
2008	3	78		3	89		2	20		1	60		9	247	
2007	2	70		6	89		2	22		0	62		10	243	
2006	1	75		2	75		1	30		0	61		4	241	
2005	1	59		3	74		0	25		0	59		4	217	
2004	2	59		2	78		0	25		0	58		4	220	
2003	1	56		1	65		0	24		0	58		2	203	
2002	1	57		1	63		0	27		0	45		2	191	
2001	1	50		3	63		1	19		0	45		5	177	
2000	1	37		2	53		1	19		1	49		5	158	
소계	18	608	2.7	27	735	3.6	9	270	3.3	3	564	0.5	57 (34.9)	2,177	2.6
1999	3	35		4	52		0	12		0	32		7	131	
1998	2	50		2	50		2	21		0	25		6	146	
1997	3	42		3	37		—	—		2	24		8	103	
1996	1	25		0	17		—	—		0	21		1	63	
1995	0	20		0	27		—	—		1	20		1	67	
1994	0	26		0	16		1	13		0	12		1	67	
1993	0	25		0	15		—	—		0	14		0	54	
1992	0	21		1	6		—	—		0	14		0	41	
1991	1	20		0	8		—	—		0	13		0	41	
1990	0	14		0	7		—	—		0	14		1	35	
소계	10	278	3.5	10	235	4.2	3	46	6.5	3	189	1.5	26 (15.9)	748	3.4
1989	1	20		0	8		—	—		0	11		1	39	
1988	0	10		0	7		—	—		0	12		0	29	
1987	0	6		0	8		—	—		0	14		0	28	
1986	1	6		0	7		—	—		1	13		2	26	
1985	0	9		0	7		—	—		0	13		0	29	
1984	0	6		0	9		0	7		0	10		0	32	
1983	0	5		0	9		—	—					0	14	
1982	0	5		0	9		—	—					0	14	
1981	0	8		0	6		0	6					0	20	
1980	0	5		0	6		0	7					0	18	
소계	2	80	2.5	0	76	0	0	20	0	1	73	1.3	3 (1.8)	249	1.2
1979	0	6		0	7		—	—					0	13	
1978	1	7		0	6		1	3					2	16	
1977	—	—		0	8		—	—					0	8	
1976	—	—		0	5		—	—					0	5	
1975	0	4		0	4		—	—					0	8	
1974	—	—		0	5		0	10					0	15	
1973	0	5					—	—					0	5	
1972	0	4					0	6					0	10	
1971	—*	—											—	—	
1970	0	5											0	5	
소계	1	31	3.2	0	35	0	1	19	5.2				2 (1.2)	85	2.3
총계	53	1,414	3.7	55	1,512	3.6	38	714	5.3	17	1,180	1.4	163	4,820	3.3
%	32.5	29.3		33.7	31.3		23.3	14.8		10.4	24.4		100	100	

-*: 미간행

1980년대는 249편 중 3편(1.8%)이 발표되었다. 정보관리는 1980년대 중반에 사서행태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한상완의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현황과 기능에 관한 조사연구(1986)이다.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1990년대는 문헌정보학이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기였다.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이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정보시대로 도약하고 팽창하였고, 문헌정보학이 ‘정보’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 맷는 역동기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영향은 학술논문의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고, 이 시기에 각 학회지는 반년 간에서 계간으로 간기를 확대하였다.

1990년대는 4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748편 중 26편(3.4%)이 발표되었다. 전반적으로 1980년대(249편) 보다 전체 논문의 수가 약 3배로 증가하였다. 언급한 바대로, 1990년대 전체 논문량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는 한문정(1996, 30(1)-), 한도정(1999, 30(1)-), 정보관리(1999, 16(1)-)가 90년대 후반부터 계간으로 간기를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서행태를 논의한 논문도 80년대(3편) 보다 약 8배(26편)로 증가하였다. 주로는 한문정(10편, 3.5%)과 한도정(10편, 4.2%)에 발표되었다. 또한, 한도정은 사서직 행태에 관한 실증적 접근의 첫 논문을 1990년대 초반에 발표하였다. 정춘화의 공공도서관 리더십에 관한 연구이다(1992).

2000년대는 디지털 정보시대로의 구체적 진화기로 1990년대 보다 연구주제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시대였다. 문헌정보학이 새로운 주제로 분기하면서 총논문수가 2,177편으로 1990년대 보다 2.9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서행태연구는 역으로 감소하였다. 2,177논문 중 57편(2.6%)이 발표되었다. 한문정이 2.7%, 한도정이 3.6%, 비블리아가 3.3%, 정보관리가 0.5%로 나타났다.

2010년대 중반시기(2010~2015)는 1,561논문 중 75편(4.8%)이 발표되었다. 그중 사서행태연구는 한문정이 5.5%, 한도정이 4.1%, 비블리아가 6.9%, 정보관리가 2.8%를 차지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사서행태 연구에서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기는 2000년대에 비해 한문정에서 사서행태 논문이 약 2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비블리아는 2.3배(6.9%), 정보관리는 약 5배(2.8%)로 증가하였다.

2. 학술지별 연구동향

학술지별 동향은 시기, 주제(대주제, 중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별 분석을 병행하였다.

가. 한국문현정보학회지

46년간 한문정에 게재된 사서행태 논문은 53편이다(부록 1). 시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18편이 생산되어 최고점을 이루었다. 2010년대 상반기 5년간 17편을 생산하였고 최근의 4편까지 추가하면 22편을 게재하였다. 이는 자체 논문생산량 중에서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차후 논의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문정을 대주제별로 살펴보면 대학도서관 사서행태가 18편(33.9%)으로 가장 우세하다. 그 다음으로는 다관종 사서행태, 공공도서관 사서행태가 각각 11편(20.7%)이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행태가 10편(18.8%), 전문도서관 사서행태가 2편, 국가도서관 사서행태가 1편 순이다. 연구목적은 인식에 관한 논문이 37 편(69.8%)으로 단연 우세하다. 그 다음으로는 현황과 개선에 관한 논문이 13편이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은 3편이다.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가 단연 우세하다. 통계기법 연구(38 편, 71.6%)와 단순빈도분석(6편)을 합친 양적 연구논문이 44편으로 83.0%이다. 그에 비해 질적 연구접근은 9편(13.4%)이다. 그중 구체적 질적 연구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4편이며,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일반적 질적 접근은 5편이다.

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도정에 발표된 사서행태 논문은 55편이다(부록 2). 시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한도정은 타 학술지 보다는 비교적 늦은 1990년대에 실증적 사서행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총10편을 게재하였다. 2000년대는 비약적 발전을 하여 총26편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4 개 학술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발표량이었다. 2010년대는 2015년까지 17편을 게재하고 있으며, 추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도정은 한문정과는 달리 대주제별로 공공도서관 사서행태가 19편(33.9%)으로 가장 우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도서관 사서행태가 13편(22.6%), 다관종 사서행태가 12편, 학교도서관 사서행태가 8편, 전문도서관 사서행태가 3편, 국가도서관 사서행태는 0편 순이다. 연구목적은 한문정과는 달리 현황 개선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논문이 29편(52.7%)으로 우세하였다. 이는 한도정이 도서관과 정보 현장의 개선과 향상 위주의 논의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식에 관한 논문이 21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은 4편이다. 연구방법은 한문정과 동일한 추세로 양적 연구가 단연 우세하다. 통계기법연구(35편, 63.6%)와 단순빈도(6편, 10.9)를 합친 양적 연구논문이 41편(74.5%) 이었다. 그에 비해 질적 연구접근은 총 14편(25.9%)이다. 이는 학술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서행태에 관한 질적 연구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그 중 구체적 질적 연구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5편이며,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일반적 질적 접근은 9편이다.

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비블리아에 게재된 사서행태 논문은 38편이다(부록 III). 시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비블리아는 1990년대 3편으로 시작하였고, 2000년대는 9편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총 25편(65.7%)을 발표하여 비약적 증가를 하였다. 이는 최근 사서행태의 전체 연구에서 최정점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서행태 논의를 다루는 대표적 학술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주제별로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사서행태가 10편(26.3%)이며, 대학도서관과 다관종 사서행태가 각 9편(23.6%)이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행태가 7편, 국가도서관 사서행태가 3편, 전문도서관 사서행태가 0편 순이다. 연구목적은 현황과 개선에 관한 논문이 18편(47.3%)이며, 인식에 관한 논문이 17편(44.7%)으로 대동소이하다. 개발에 관한 논문은 3편에 불과하다.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가 35(92.1%)편이며, 그중 통계분석이 25편(65.7%)이며, 단순빈도 연구가 10편이다. 구체적 질적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3편(7.8%)이다.

라. 정보관리학회지

정보관리에 게재된 사서행태 논문은 17편이다(부록 IV). 시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보관리는 1980년대 1편을 게재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각각 3편씩을 발표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10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대주제별로 살펴보면 대학도서관 사서행태가 7편(41.1%)이며, 다관종 사서행태가 5편, 공공도서관 사서행태가 4편, 학교도서관 사서행태가 1편 순이다. 전문도서관 사서행태와 국가도서관 사서행태 논문은 게재된 바 없다. 연구목적은 인식에 관한 논문이 9편(52.9%), 현황과 개선에 관한 논문이 8편(47.0%)이며, 개발에 관한 논문은 없다.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가 우세하다(14편, 84.3%). 이중 통계분석 논문이 11편이며, 단순빈도 논문이 3편이다. 구체적 질적 연구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1편이다.

3. 주제별 연구동향

가. 대주제 분석

사서행태연구의 대주제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대학도서관 사서행태가 47편(28.8%)이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도서관 사서행태가 44편(26.9%), 다관종 사서행태가 37편(22.6%), 학교도서관 사서(교사)행태가 26편(15.9%), 전문도서관 사서행태가 5편(3.0%), 국가도서관 사서행태가 4편(2.4%) 순이다.

〈표 2〉 서서행태연구의 대주제 문석

대주제	공급도서관 사서통계*			대학도서관 사서통계			전문도서관 사서통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통계			국립도서관 사서통계			다관종 사서통계			사서통계 연구목적**			사서통계 연구방법***											
	증주계 현도	W	O	E	I	개	W	O	E	I	개	W	O	E	I	개	W	O	E	I	개	Qn	f	Ql	c	개							
2015	2	1	3	1	2		3	1		1	2	2	1	5		0	1	1	2	11	3	14	8	2	1	3	14						
2014- 2010	11	6	1	18	8	4	12	1	1	2	4	2	2	10	1	1	1	3	6	10		16	26	27	8	10	6	61					
2009- 2005	1	9	3	13	4	3	7			0	3	6		9			0	1	8	1	10	17	20	1	39	6	3	1	39				
2004- 2000	4	4	3	5	8		0		1	1				0		0	3	2	5	13	4	1	18	14	3		1	18					
1999- 1995	4	4	4	8	2		14	2		2				0		0	1	2	3	12	11		23	15	4		4	23					
1994- 1990	1		1				0			0				0		0	1	1	1	1	2	1		3	3			3					
1989- 1985		0	2				2			0				1		1		0	0	1			0	2	1		3						
1984- 1980		0					0			0				0		0		0	0			0		0		0	0						
1979- 1975	1	1	1	1			0			0				0		0	0	0	0			0	2		2		2						
1974- 1970		0					0			0				0		0		0	0			0		0		0	0						
%	27.2	61.3	9.0	22.1	100	38.25	51.0	10.6	0	100	80	20	0	100	34.6	42.3	15.3	7.6	100	25	50	25	0	100	52.74	11.6	1	100	66.8	15.3	8.5	9.2	100
%	26.9						28.8			3.0				15.9				2.4			22.6				134		29		(82.2%)	(17.7%)	100		

W: 업무, O: 조직, E: 교육, I: 개인특성, P: 인식, S: 현황과 개선, D: 개발, Qn: 통제기법연구, f: 질적 연구, QI: 단순변도, QL: 일반 질적 연구

대학도서관 사서행태는 시대적 변화와 상관없이 사서행태연구를 대표하는 주제이다. 1970년대 후반 1편의 논의로 시작되어, 80년대는 2편이었다. 90년대는 14편으로 급증하였다. 2000년대는 15편, 2010년 중반기까지 15편으로 지속적으로 논의 되는 주제이다. 대학도서관 사서행태의 중주제를 살펴보면 조직행태에 관한 주제가 절반을 넘는다(24편, 51.0%). 그 다음으로는 업무행태에 관한 주제(18편, 38.2%)가 다수이며, 교육행태에 관한 주제(5편, 10.6%) 순이다.

공공도서관 사서행태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서행태연구의 대표적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행태연구는 향후에도 사서행태연구에서 주요 관심주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도서관 사서행태는 70년대 중반에 처음 논의되었다. 1980년대는 발표된 실증적 논문이 없었으나, 90년대는 5편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재론되던 2000년대부터는 17편으로 급증하였다. 2010년 중반기에는 벌써 21편의 논문을 생산하였다. 공공도서관 사서행태의 중주제를 살펴보면 조직행태에 관한 논문이 27편(61.3%)으로 가장 우세하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행태에 관한 논문이 12편(27.2%), 교육행태가 4편(9%), 개인특성에 관한 논문이 1편(2.2%) 순이다.

다관종 사서행태는 2개 이상의 도서관유형에서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때로는 사서집단을 비교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 주제는 90년대 논문이 등장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논문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0년대 4편으로 시작하여, 2000년대는 15편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중반기에는 18편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다관종 사서행태의 중주제로는 조직행태 주제가 가장 많으며(23편, 62.1%), 그 다음으로는 업무행태(8편, 21.6%), 교육행태(6편, 16.2%)순이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행태 주제도 2000년대를 기점으로 부상하는 주제이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행태는 1980년대 첫 논의가 1편 생산되었다. 김병주의 司書教師의 役割에 대한 認識研究(1989 12월)이다. 90년대는 소강상태였다. 2000년대는 본격적으로 10편의 논문이 생산되었고, 2010년대 중반기에 15편으로 증가하였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행태는 중주제영역으로 조직행태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다(11편, 42.3%). 그 다음으로는 업무행태(9편, 34.6%), 교육행태(4편, 15.3%), 개인특성행태(2편, 7.6%) 순이다.

전문도서관 사서행태와 국가도서관 사서행태는 소수의 주제로 2010년대에 비교적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주제이다. 전문도서관 사서행태(5편, 3%)는 1990년대 2편으로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논문이 생산되지 않았으며, 2010년대 3편의 논의가 생산되었다. 중주제영역에서는 업무행태 논의가 많으며(4편), 조직행태에 관한 논의는 1편이다. 국가도서관 사서행태 논문(4편, 2.4%)은 1990년대 1편을 시작하였다. 2000년대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2010년에 3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중주제영역으로는 조직행태에 관한 연구가 2편이다.

나. 중주제 분석

사서행태의 중주제 분석에서 조직행태 주제가 절반을 상회하며(88편, 53.9%), 그 다음으로는 업무행태 주제가 1/3을 차지하였다(52편, 31.9%). 교육행태 주제(20편, 12.2%)와 개인특성에 관한 주제는 소수이다(3편, 1.8%)(표 3).

사서행태연구의 출발점이자 사서행태를 대표하는 중주제는 조직행태이다. 조직행태 논문(88편, 53.9%)을 가장 많이 생산한 대주제영역은 공공도서관 사서행태로 27편(30.6%)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도서관 사서행태(24편, 27.2%), 다관종 사서행태(23편 26.1%), 학교도서관 사서(교사)행태(11편, 12.5%), 국가도서관 사서행태(2편), 전문도서관 사서행태(1편) 순이다. 조직행태 주제는 1970년에 대학도서관 사서행태와 공공도서관 사서행태의 2편의 논문으로 시작하였다. 80년대에는 1편, 90년대에는 15편이다. 2000년대 하반기는 27편으로 조직행태 주제에서 최고치를 이루었다. 2000년대는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여 39편으로 중주제의 최고 절정을 이루었고, 2000년대를 대표하는 중주제가 되었다. 2010년대에는 업무행태 주제의 선호추세로 인하여 항상 비교우위를 점하던 조직행태주제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31편)를 보이고 있다.

업무행태 주제(52편)는 대학도서관 사서행태가 1/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논의되었다(18편, 34.6%). 그 다음으로는 공공도서관 사서행태(12편, 23.0%), 학교도서관 사서(교사)행태(9편)와 다관종 사서행태(8편), 전문도서관 사서행태(4편), 국가도서관 사서행태(1편) 순이다. 업무행태는 1980년대 후반에 2편의 논문으로 시작하였다. 시작 논문은 한상완의 박사학위 논문을 축약한 대학도서관 정보사서의 정보서비스 효율성 평가(한국문현정보학회지 1986)와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현황과 기능에 관한 조사연구(정보관리학회지 1986)이다. 90년대는 7편, 2000년대는 8편으로 명맥을 이었다. 업무행태 주제는 2010년대 상반기에는 31편(59.6%)으로 중주제영역에서 최고치를 이루면서 폭발적 성장과 절정을 이루었고, 2010년대를 대표하는 사서행태의 강력한 중주제가 되었다. 그 배경은 다양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였고, 도서관과 사서들도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교육행태 주제(20편)는 다관종 사서의 교육행태가 6편(30%),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육행태가 5편,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육행태가 4편, 공공도서관 사서의 교육행태가 4편, 국가도서관 사서의 교육행태가 1편 순이다. 교육행태 주제는 1990년대 대학도서관 사서행태 2편과 다관종 사서행태 2편 등 4편의 논문으로 시작하였다.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육행태의 첫 번째 논의는 박준식과 박은정의 대학도서관의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7 1월)이다. 다관종사서의 교육행태의 첫 연구로는 장혜란의 문현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한국문현정보학회 1997 3월)이다. 2000년대 10편으로 증가하

<표 3> 시서형태연구의 중주제 분석

중주제	언문형태								조작형태								교육형태								개인특성형태												
	궁*	대*	내*	전*	한*	국*	다*	개	공	대	전	한	국	다	체	공	대	전	한	국	다	체	개	궁	대	전	한	국	다	체	개						
2015	1	1	2		4	2	2	4	2	2	2	1	7			1	1	2	1					1	14												
2014-2010	11	8	1	4	1	6	31	6	4	1	2	1	10	24	1		2	1	4				2		2	61											
2009-2005	1		3		1	5	9	4		6		8	27	3	3			1	7					0	39												
2004-2000	3				3	4	5			3	12			1		1	2	3						0	18												
1999-1995	4	2		1	7	4	8			12		2				2	4								0	23											
1994-1990			0		1				1	1	3					0									0	3											
1989-1985	2				2					1		1				0										0	3										
1984-1980				0								0				0											0	0									
1979-1975			0	1	1							2				0											0	2									
1974-1970				0								0				0											0	0									
%	23.0	34.6	7.6	17.3	1.9	15.3	100	30.6	27.2	1.1	12.5	2.2	26.1	100	20.0	25.0	0	20.0	5.0	30	100	33.3	0	0	66.6	0	0	100									
%							31.9							53.9								12.2							1.8	100							

: 궁동도서관 시서형태, 대: 대학교도서관 시서형태, 전*: 전문도서관 시서형태, 한*: 학교도서관 시서형태, 국*: 국가도서관 시서형태, 다*: 다른종 시서형태

였으며, 2010년대에는 6편이다.

사서의 개인특성행태에 관한 주제는 2000년대 새롭게 등장한 주제로 총3편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 논의는 변우열, 이병기, 송기호의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사 도구 개발과 자아상 분석(한국비블리아 2013 6월)이다. 이 주제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개인특성의 구명(2편)에 주로 관심을 갖고있으며, 공공도서관 사서의 개인특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1편).

다. 소주제 분석

사서행태의 소주제별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중주제별로 구분하였다(표 4). 사서의 조직행태(88편)는 1970년대 후반 사기(士氣), 직무만족에서 시작하였다. 조직행태 주제는 시대별 변동 없이 꾸준하게 논의되는 주제이다. 현재까지 가장 빈번한 소주제로는 직무만족(14회)이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사회화(6회), 직무분석(4회), 조직몰입(3회), 조직갈등(3회)이다. 조직행태 주제로 독특한 논의는 국내 여성사서의 직력 유형에 관한 논의와 조직갈등에 관한 논의이다. 여성사서의 직력 유형 논의(최은주 1991)는 국내 여성사서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적, 가족적 배경과 직업선택의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역작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조직갈등(3편) 논의는 국내 도서관내의 조직갈등을 체계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사서의 업무행태(52편)는 도서관을 둘러싼 제 사회적 변화추세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주제이다. 업무행태 논의는 도서관업무가 정보기술의 발전, 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도서관과 사서의 능동적 변화 인식 등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업무행태는 1980년대 후반 도서관계의 고전적 주제인 주제전문서비스에서 출발하였다. 소주제로는 수서, 정리업무 등이 논의되어 왔으며, 2010년대는 문화프로그램, 다문화서비스,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등의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였다. 업무행태 논의로 최근 독특한 연구는 대학도서관사서의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논문(김정현 2011)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근거중심 실무를 언급한 논의(표순희 2010)도 유용하다. 업무 행태에서 최근 비교적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다문화서비스(4회), 정리업무(4회), 정보서비스(4회), 소비자건강정보(3회), 문화프로그램(2회), 이용자 프라이버시(2회)이다.

교육행태(20편)는 주로 현직 사서들의 계속교육(10회)과 현직 사서들이 인식한 학부 교과과목(6)의 유용성에 관한 주제들이다. 개인특성행태(3편)는 에고그램을 적용하여 사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면성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참신하고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 사서행태연구의 소주제 분석

증주체 시기	업무행태	조직행태	개인특성 행태	
			교육행태	개인특성 행태
2015	독자치료, 공동도서관과의 협력, 이용자 프라이버시, 전자치료 수사업무 / (4)	직무만족, 천문직, 도서관 공간, 주체전문서비스, 공간, 업무민족, 조직효과 / (7)	연수교육프로그램, 학습동아리 / (2)	자아상태 / (1)
2014~2010	문화프로그램(2), 이용자프라이버시, 디문화서비스(3), 어린이 목록, U-도서관서비스, 소비자건강정보(2), 청탁방장, 청탁, 간접노동, 청탁자료, 업무, 수사업무, 글로벌 청탁, 고지증명, 청탁부서, 지원공유, 민족형 이용자교육, 주체 전문서비스(5) 권리, 소비자 진장정보서비스(5)	직무분석, 조직커뮤니케이션(3), 어린이도서관, 직무민족(4), 순회 시사제도,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리더쉽, 고용안정, 행보형 프로그램, 직업사회화(3), 시서공무원 공체, 시험파목, 도서관 구축, 사서직 체업지도표, 비정규직 고용실태, 고용현황과 인력개발 / (24)	계속교육, 연수교육, 도, 학부교육 실습, 사원비연수 / (4)	자아상태 / (2)
2009~2005	청소년프로그램, 참고정보서비스, 정보활용수업, 청탁권, 소비자 진장정보서비스(5)	도서관 평가자료, 조직몰입(2), 지역대표도서관, 경력개발, 직무분석, 직무만족(3), 평생교육 체제, 리더쉽, 조직갈등, 사서의 핵심 능력, 멘토링, 역할인식, 전문성(2), 사서교 향가지표, 직무적응, 청탁방법(2), 사서자격제도 전문서서 수요, 주체전문서비스운영, 역할 지향, 사서 청체성, 경력이동과 경력개발 / (27)	계속교육(2), 학부교과 과정, 계속교육(3), 문정학, 학부교육(3), 청탁, 학부교육 / (7)	39
2004~2000	연구활용장애, 청탁업무, 작업성과 / (3)	직무성과, 직무분석, 조직몰입, 직업사회화, 리더쉽, 조직문화(2), 직무만족, 천문직 요건, 직업이미지, 전문직 역량, 탐색 조직 / (12)	학부교육과정, 계속교육, 문정학 학부프로그램 협약 / (3)	18
1999~1995	작업성과, 전시효과, 주체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일반 전공지식, 정보이용형태, 청탁부서 역할 / (7)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의식, 시설과 인적지원, 조직갈등(2), 직무 만족(3), 조직유효성, 동기유발, 주체사서제, 리더쉽 / (12)	계속교육(3), 학부 문정 학교과정 / (4)	23
1994~1990		리더쉽, 직무지향성, 여성사서 직역 유형 / (3)		3
1989~1985	주체전문성, 정보서비스 / (2)	역할 인식 / (1)		3
1984~1980				0
1979~1975		사기, 직무만족 / (2)		0
1974~1970				2
번번 주체	다문화서비스(4), 청탁업무(4), 정보서비스(4), 소비자건강정보(3), 문화프로그램(2), 이용자 프라이버시 / (2)	직무만족(14), 직업사회화(6), 리더쉽(5), 직무분석(4), 조직문화(3), 조직갈등(3)	계속교육(10), 학부 교육 / (6)	163
제	52	88	20	3
%	31.9	64.7	12.2	1.8

4. 연구목적 분석

사서행태연구는 대체로 특정 현상에 관한 사서의 인식이나 현장 개선을 연구 목적으로 하며, 주로 양적 연구로 수행되는 추세이다. 사서행태연구의 연구목적은 논문의 절반 이상이 탐구현상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행태(86편, 52.7%)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탐구현상의 현황 및 개선(67편, 41.1%)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이나 이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10편, 6.1%) (표 2). 탐구현상에 관한 사서의 인식행태를 탐구하는 주제가 현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보다 더 많이 수행되는 이유는 연구주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식의 연구는 주로 전문연구자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실무자들이 관심 가지고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5. 연구방법 분석

사서행태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의 편향성이 심하였다(표 2). 분석대상 논문의 82.2%(134편)가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중에서 통계분석 접근은 66.8%(109편)이고, 단순빈도 분석은 15.3%(25편)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고급통계기법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질적 연구접근은 17.7%(29편)로 빈약하였다.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은 8.5%(14편)이며,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일반 질적 접근은 9.2%(15편)이다. 질적 연구방법의 접근은 1990년대 후반에 일반 질적 접근으로 4편이 생산되었다. 구체적 질적 연구방법을 언급한 논문은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하고 있으며, 2010년대에는 10편으로 증가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사서행태 연구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6. 연구대상지역 분석

사서행태연구의 참여자가 거주한 지역을 사서행태연구의 대상지역으로 간주하고 대상지역을 분석하였다.

사서행태연구는 전국의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89편으로 절반 이상(54.6%)을 차지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회원명부, 국공립사립대 도서관 회원명부, 의학도서관협의회명부 등 도서관종별 협회의 회원명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를 선발한 연구, 3개 이상의 지역에서 대상을 선발한 연구, 특정 대학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연구는 전국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이 23편(14.1%), 서울 및 경기지역이 13편(7.9%), 부산 지역이 12편(7.3%)이다. 대구와 경북 5편, 전북 5편, 경기도 4편, 부산과 경남 3편, 충북 3편,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고 추정이 불가능한 논문이 3편, 충남 1편이다. 서

울, 서울과 경기지역, 부산, 부산과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우세한 것은 문현정보학과의 소재지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원지역, 전남지역, 제주지역의 사서행태를 단독으로 실증적 경험적으로 논의한 논문은 한 편도 없다. 동일한 관점에서, 특히 강원지역과 제주 지역의 사서행태연구가 부재한 것은 문현정보학과 소재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연구자유형 분석

사서행태연구는 단독연구가 93편으로 절반 이상(57.0%)을 차지하며, 공동연구가 70편(42.9%)이다. 단독연구에서 가장 우세한 연구자유형은 교수로 67편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서 10편(61%), 사서교사 5편, 시간강사 4편, 연구원 4편 순 등이다. 공동연구에서 우세한 유형은 교수와 사서유형으로 27편(16.5%)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수와 교수유형이 16편(9.8%), 교수와 대학원생유형이 12편(7.3%), 교수와 강사유형이 5편 등이다. 현장전문가인 사서와 사서교사가 차지하는 부분은 15편(9.2%)으로 매우 빈약하다. 교수단독과 교수간 공동연구로 수행된 연구가 83편(67편, 16편)으로 절반을 차지한다(50.9%). 교수가 참여한 공동연구는 70편(42.9%)이다. 전체 연구에서 교수가 단독 및 다양한 신분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는 137편으로 전체 논문에서 84.0%를 차지한다.

시기별 추이를 보면 초창기인 7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상반기 까지는 소수의 연구들(8편)이 발표되었다. 그 저자는 대부분 교수의 단독연구(7편)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기가 되면서 교수의 단독연구(16편)가 여전히 우세하지만, 교수와 사서(4편), 혹은 교수와 강사(1편) 형태의 공동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기에는 교수와 교수형태의 공동연구(8편)가 등장하였다. 2000년대 중반기부터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공동연구(14편)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10년대는 공동연구가 41편(54.6%)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동연구와 공저자가 등장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는 연구설계의 정교화로 과거보다 연구설계가 복잡해지고 연구규모가 확대되어 공동협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사서 혹은 강사, 대학원생 등의 저자신분으로 등장하는 문현정보학 대학원생의 증가로 교신저자로서 교수의 등장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도 맞물려 있다. 부정적으로는, 공동연구를 선호하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과잉적 협력에 의해 공저자가 증가하는 일면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교수들의 연구실적에 따른 현실적 압박으로 인해 교수간의 불필요한 협력으로 공저자가 나타날 수 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 문현정보학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공동연구, 공저자의 협력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차후의 연구주제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사서행태연구의 이상적인 연구주체는 도서관 현장의 사서이어야 한다. 실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근거로 도서관 현장의 미래를 주도해 갈 주체는 사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서행태를 연구하는데 있어 전문 연구자들과 도서관 현장의 전문가인 사서들의 공동연구가 대폭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양측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무의 간격 완화는 현장에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며,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제영역과 연구자유형을 관련시켜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 사서행태(44편)는 주로 교수(15편, 34.0%)에 의해 연구되거나, 교수와 사서의 공동연구(11편, 25%),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연구(5편), 교수와 교수의 공동연구(5편)에 의해 논의되었다. 공공도서관 사서행태는 타 주제와 비교하여 교수와 사서간 공동연구가 높은 주제였다. 대학 도서관 사서행태(47편)는 주로 교수(22편, 46.8%)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연구되었고, 교수와 사서(7편, 14.8%), 사서(5편, 10.6%)에 의해 연구되었다. 대학도서관 사서행태가 교수집단이 선호하는 주요 논제인 이유는 타 관종 보다 대학도서관이 학술적이고 연구 지향적이기 때문에 환경의 친숙함과 접근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도서관 사서행태(5편)는 교수가 1편, 사서가 1편, 교수와 사서, 사서와 사서가 각 1편씩 논의하였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행태(26편)는 절반 정도가 교수(13편, 50%)에 의해 논의되었다. 특히 학교도서관 현장에 있는 사서교사 5편(19.2%), 교수와 교수가 4편, 교수와 사서가 3편 순 등이다. 국가도서관 사서행태(4편)은 교수(2편)에 의해 주로 논의되었다. 다관종 사서행태(37편)는 주로 교수(15편, 40.5%)에 의해 논의 되었다. 교수와 교수가 6편, 교수와 사서가 4편 등 순으로 논의하였다.

IV. 논의

사서행태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연구의 주체, 연구목적, 연구방법, 학술지별 특화전략을 논하고자 한다.

1. 사서행태연구의 연구주체

사서는 도서관·정보현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주도하는 연구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사서들을 대상으로, 사서에 관한 연구인 사서행태를 연구하는데 사서(교사)가 단독

혹은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비율은 저조하였다(43편, 26.3%). 사서행태연구를 전문연구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서가 연구와 지식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서가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맥락에서 내부자로서 자신의 실무수행을 관찰하고 탐구하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실무현장과 업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시도가 사서직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근간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서가 생산한 현장과 실무 중심의 연구결과는 근거중심의 실무지식으로 유용할 것이다.

2. 사서행태연구의 연구목적과 연구결과의 적용

사서행태연구는 특정 현상에 관해 사서의 인식을 탐구하고 현황 개선을 목적으로 주로 양적 연구로 수행되는 추세이다. 지식개발을 위한 이론도출이나 모형개발 측면은 극히 소수이다.

사서행태연구 결과는 근거실무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도서관에 산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적용 가능해야 한다. 사서행태 연구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현장의 주요 문제점을 검증하고, 도서관 실무를 변화시켜 나가며, 도서관과 정보, 사서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정책의 개발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서행태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서행태연구가 양적 연구로 편향적(134편, 82.2%)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제기한 사서행태의 정의에 근거한다. 즉, 사서의 직접인 경험이나 의견을 찾고자 실증적 경험적 연구로 제한한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서행태연구에서 나타난 양적 연구의 편향성은 일차적으로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교육이 양적 연구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김갑선 2015). 또한, 양적 연구 선호는 연구설계가 이루어지면 단시간에 다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대량의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결과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양적 연구의 장점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는 연구결과를 논문심사자와 독자에게 피력하고 설득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사서행태연구를 발전을 위해 연구접근을 다원화하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조화가 필요하다. 양적 연구에 편의상 면담자료 몇 개를 수집하고 추가한다고 혼합연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경험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질적 연구가 되는 것도 아니다. 탐구현상에 대해 ‘익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연구자의 전환적 해석적 관점이 중요하다. 연구자 스스로 연구자 관점에 관한 철저한 성찰 없이는 탐구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을 도출할 수 없다. 미성숙한 질적 연구는 오히려

양적 연구와 동의반복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거나, 양적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 밖에는 못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양적과 질적 연구방법은 서로의 장점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이고 보완적 개념이다.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데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접근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적 연구를 엄격하게 수행한다면,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그에 반해, 질적 연구방법은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통한 과정 중심적, 귀납적 접근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로서 연구자의 인식과 입장을 먼저 성찰하고, 어떤 연구방법이든 명확한 연구목적과 정확한 연구설계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행태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 연구방법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질적 연구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사서행태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학술지별 특화전략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동향에 근거하여 사서행태연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학술지별 특화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정학회지는 대학도서관 사서행태 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고, 가장 많이 게재하였다. 이를 근거로 대학도서관 사서행태 주제를 유지하고 강화해 가는 것이 학술지 발전에 장점이 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연구자들도 관련 논의를 투고할 때 해당 논의를 꾸준히 축적해 온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둘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전통과 강점은 실무와 현장 중심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통으로 인하여 사서행태 주제 뿐 아니라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학술지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성의 주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대표성을 유지해 왔던 공공도서관 사서행태 주제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사서행태 주제도 지속적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성과 맞물려 질적 연구접근을 존중해 온 한도정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의 원류로 강화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최근 실증적 연구가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서행태 논의를 국가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위주로 특화시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서행태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을 대표하는 학술지 4종의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최대 46년간 발표된 사서행태에 관한 163편(3.3%)의 논문들을 선

별하였다. 연도 및 시기, 학술지, 주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연구자유형, 대상지역의 측면에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나름의 사서행태연구를 정의하고, 사서행태의 연구동향을 검토하여 국내 사서행태연구의 특색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서행태를 연구하는데 무엇보다 사서(교사)가 연구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의 다양화로 양적 연구의 편향성을 지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서행태연구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현장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적용되어야 한다. 도서관 실무와 이론을 변화시켜 나가며, 도서관과 정보, 사서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정책의 개발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국내 학술지논문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학술지에 미발표된 학위논문 중 관련 연구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동향분석을 단순빈도와 비율의 서술연구로 접근하였다.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시기별 분석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요소와 연계하여 관련성과 추세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사서행태의 연구 내용을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의 주제 분석만 했을 뿐 메타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즉, 연구결과의 내용분석을 질 메타적으로 수행하여 사서들은 어떠한 인식과 행동체계를 가진 집단인지, 이들은 조직구성원으로서 업무와 조직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면 더욱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넷째, 자료의 분석기간은 최대 46년간 이지만, 국내 문헌정보학의 학술지논문으로만 분석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국외저널에서 논의되는 사서행태논문을 선별하여 국외의 사서행태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비교한다면 흥미로운 연구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사서행태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간략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은 다양한 탐구 현상에 관한 사서행태연구에 주도적 연구주체가 되어야 하고, 근거 중심의 실무지식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서행태의 다측면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셋째, 탐구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강원지역, 제주지역, 전남지역 사서행태에 관한 연구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소수이지만 최근 부상하고 있는 국가도서관, 전문도서관 사서행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서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미희, 김정현. 2014.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457–482.
- 김갑선. 2015.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방법 교육내용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255–275.
- 김병주. 1989. 司書敎師의 役割에 대한 認識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7: 229–259.
- 김정현. 2011.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43–262.
- 박인웅. 1978. 國·公立 圖書館 司書職의 土氣에 관한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 125–151.
- 박준식, 박은정. 1996. 대학도서관의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5: 569–593.
- 변우열, 이병기, 송기호. 2013.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사 도구 개발과 자아상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2): 31–47.
- 장혜란. 1997. 문헌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현황과 요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1): 7–28.
- 전재봉. 1978. 사서의 직무태도에 대한 분석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 13–38.
- 정재영, 박진희. 2011. 한국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71–191.
- 정춘화. 1992. 공공 도서관 조직의 리더쉽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9: 1–34.
- 표순희. 실무자의 근거출판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국내 적용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19–239.
- 최은주. 1991. 한국 여성사서의 職歷類型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1: 103–140.
- 한상완. 1986a.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현황과 기능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 42–74.
- 한상완. 1986b. 대학도서관 정보사서의 정보서비스 효율성 평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3: 95p–119.
- Abrizah, A., Samaila Inuwa and N. Afiqah-Izzati. 2016.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forming LIS Professionals on Embedding Librarianship Rol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2(6): 636–643.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Woo-Yeoul, Byeong-Ki Lee, and Gi-Ho Song. 2013.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Tool and Analysis of Self Images for Teacher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2): 31–47.
- Chang, Hye-Rhan. 1997.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 Present Situation and Need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7–28.
- Choi, Eun Ju. 1991.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Patterns of Korean Female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 103–140.
- Chung, Choon-Hwa. 1992. "Study on Leadership of Public Library Organiz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9:1–34.
- Chung, Jae-Young, and Jin-Hee Park. 2011.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Field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171–191.
- Choi, Eun Ju. 1991.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Patterns of Korean Female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 103–140.
- Han, Sang-Wan. 1986. "A Study on Functions and Present Situation of Subject Specialists for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 42–74.
- Han, Sang-Wan. 1986. "An Evaluation for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ervices by Reference Librarians at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3: 95p–119.
- Jeon, Jae-Bong. 1978. "A Analytic Study of the Librarians' Job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3–38.
- Kang, Mi-Hee, and Jeong-Hyen Kim. 2014.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457–482.

- Kim, Byoung-Ju. 1989. "A Study on the Roles of the Teacher-Librarians as Perceived by Supervisors, Principals, Teachers and Teacher-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 229–259.
- Kim, Jeong-Hyen. 2011. "A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Librarians of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243–262.
- Kim, Kapseon. 2015.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255–275.
- Park, In-Ung. 1978. "A Study of the Librarians' Morale in National and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 125–151.
- Park, Joon-Shik, and Eun-Jung Park. 1996. "Continuing Education for Reference Librarian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569–593.
- Pyo, Soon-Hee. 2010. "The Study on the Applying Methods for EBLIP in Korean Librarian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219–239.

[부록 I] 한국문학전보 학회지의 사서행태 논문 추이

W: 업무, O: 조직, E: 교육, I: 개인특성, P: 인식, S: 협회과 개선, D: 개발, Qn: 통계기법, f: 단순변도, QI: 질적 연구, q: 일반 질적 연구

[부록 II]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사서행태 논문 추이

대주제	국립도서관 사서행태*			대학도서관 사서행태			전문도서관 사서행태			학고도서관 사서행태			국가도서관 사서행태			단관종 사서행태			사서행태 연구방법**			%											
	W	O	E	I	C	W	O	E	I	C	W	O	E	I	C	W	O	E	I	C	Qn	f	Ql	q									
증주제 연도																																	
2015	1	1			0	1		1		0					0	1	1	2	1	3	2	1		3	5.4								
2014- 2010	3	1	4	3		3	1		1	1	2				0	1	4		5	1	10	4	15	7	4	4	14	14	25.4				
2009- 2005	7		7	1	1	2		0	2	4	6				0	1	2	3	8	10	18	15	1	1	18	18	32.7						
2004- 2000	3	3	1	3	4		0		0						0	1	1	2	7	2	9	7	1	1	8	8	14.5						
1999- 1995	3	3	1	2	1	4	1		1		0				0	1	1	1	3	6	9	3	3	3	9	9	16.3						
1994- 1990	1		1		0			0		0					0		0	1		1	1			1	1	1.8							
1989-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84- 19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79- 197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74- 19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	3	15	0	1	19	5	6	2	0	13	3	0	0	0	3	2	5	1	0	8	0	0	0	2	7	3	35	6	5	9	55	55	100
%		33.9			22.6		5.6			15.0					0		22.6	40.0	52.7	7.2	100	63.6	10.9	9.0	16.9	100	100						

W*: 업무, C*: 조작, E*: 교육, I*: 개인특성, P*:인식, S**: 혼장과 개선, D**: 개발,
 Qn***: 통계기법연구, f***: 단순변도, Ql***: 질적 연구, q***: 일반 질적 연구

[부록 III]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사서행태 논문 추이

대주제	국립도서관 시서행태*			대한도서관 시서행태			전문도서관 시서행태			한국도서관 시서행태			국가도서관 시서행태			단국도서관 시서행태			한국학회 연구목적*			사서행태 연구방법**			사서행태 연구방법***						
	증주제 연도	W	O	E	I	제	W	O	E	I	제	W	O	E	I	제	W	O	E	I	제	P	S	D	제	Qn	f	Ql	q	제	기
2015	1	1	1			0		0	1	2	3		0		0		0	3	1	4	4	4	4	4	4	4	4	10.5			
2014- 2010	2	2	1	5	2			0	2	0	2	4	1	1	2	4	4	4	8	8	11	2	21	14	4	3	21	21	55.2		
2009- 2005	1	2	3			2	1	3	0		0		0		0	1	1	2	4	1	7	2	5		7	7	7	7	18.4		
2004- 2000	1	1	1			1				0	0				0	0	0	1	1		2	1	1			2	2	2	2	5.2	
1999- 1995		0		1	1	2				0	0				0	0	0	1	1		2	2			2	2	2	2	5.2		
1994- 1990		0				0				0	0				0	1	1	1	1		0	1	1		1	1	1	1	1	2.6	
1989-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84- 19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79- 1975		0		1		1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2.6	
1974- 19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3	4	3	0	10	3	4	2	0	9	0	0	0	0	3	2	0	2	7	1	1	0	3	4	5	0	0	9	17	38	
%		26.3				23.6				0		18.4			5.8		23.6	44.7	47.3	7.8	100	65.7	26.3	7.8	0	100	100				

W*: 업무, O*: 조직, E*: 교육, I*: 개인특성, P*: incontr, S**: 협회과 개선, D**: 개발,
 Qn***: 통계기법연구, f***: 단순변도, Ql***: 질적 연구, q***: 일반 질적 연구

[부록 V] 정보관리학회지의 서서행태 논문 추이

대주제	공공도서관 서서행태*			대학도서관 서서행태			전문도서관 서서행태			학교도서관 서서행태			국립도서관 서서행태			민관종 서서행태			시서행태 연구방법**			사서행태 연구방법***								
	총주제	W	O	E	I	체	W	O	E	I	체	W	O	E	I	체	W	O	E	I	체	P	S	D	체	Qn	f	Ql	d	제
2015	1	1	0	0	0	0	0	0	1	0	1	1	2	0	2	2	2	2	2	2	2	2	2	2	2	11.7				
2014-2010	2	2	1	2	3	0	1	1	0	1	1	2	5	3	8	5	1	2	0	2	2	2	2	2	2	47.0				
2009-2005	0	0	1	1	1	0	0	0	1	0	1	1	2	0	2	2	0	2	2	2	2	2	2	2	2	11.7				
2004-200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5.8				
1999-1995	1	1	1	1	0	0	0	0	1	0	1	1	2	0	3	1	1	1	1	1	1	1	1	1	1	3	17.6			
1994-19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89-1985	0	1	1	1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5.8				
1984-19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79-197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74-19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	2	2	0	0	4	3	3	1	7	0	0	0	0	1	0	0	0	0	0	0	5	9	8	0	17	11	3	2	17	17
%	23.5	41.1	5.8	0	29.4	52.9	47.0	0	100	64.7	17.6	11.7	5.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W*: 열무, O*: 조작, E*: 교육, I*: 개인특성, P*: 임직, S**: 협회과 개설, D*: 개발,
 Qn***: 통계기법연구, f***: 단순변도, Ql***: 질적 연구, ql***: 일반 질적 연구

